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9호 [루게 제24967호] 주체104(2015)년 7월 8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리영길 동지, 김원홍 동지, 노광철 동지, 서홍찬 동지, 조남진 동지, 량철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향연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쓰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설

우리 당과 조국을 온 누리에 빛 내 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우리 당과 조국은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당, 위대한 나라이다. 조국해방 일흔륙과 당창건 일흔육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7월 8일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길이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재생의 은인,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백전백승 조신로동당의 창건자, 영도자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우리의 국호가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었고 조신로동당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위용떨치게 되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와 세계를 경탄시킨 세기적변혁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고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존엄과 행복도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당과 조국을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존함은 세세년년 영원불멸할 것이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실천적전파와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대양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적대경사와 불멸의 강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이 땅에서 착취와 압박이 없고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며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것으로 전진시키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애국의 리념이었고 혁명영도원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20성상 피어낸 항일대장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밑에 해방후 지체없이 주체의 혁명적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적 운영개척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부강조국건설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유일사상 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조직력파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불멸의 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빈터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신것은 당과 조국안에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력사는 우리 수령님처럼 근 반세기에 걸쳐 가장 존엄한 시련속에서 당과 국가를 백전백승의 한길로 영도하시며 그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업적과 조국건설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것인가를 가슴쓰겁게 절감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투쟁목표와 활동원칙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가 깃들어있고 강성국가건설의 고귀한 밑천인 불멸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다. 조신로동당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그 뿌리와 전통도, 발전력사와 찬란한 미래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수령님의 당, 수령님의 나라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조국의 앞길에 백승의 활로를 열어주신 주체의 대양이다.

당의 위대성,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가 낳은 가장 훌륭한 사상리론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총대중시, 군사주제사상은 남들이 결코 지 못하듯 창창한 길을 따라 건당, 건국위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이였으며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우리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우리 조국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따라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올수 있게 한 위대한 등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함에 대한 문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의 당건설사상리론, 방법을 다 밝혀주시였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영도예술건설에 관한 리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들은 오늘날 우리 당건설과 부강조국건설에서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사상과 로선을 가지고 전진하는 당과 조국의 전도는 양양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적이고 백과전서

적인 강령적지침이 있기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사소한 침체나 헛갈림도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조국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기의 성스러운 력사에 승리와 영광만을 누수아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회세의 정치원로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서 당을 강화하고 국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빈터와 폐허에서 이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바로 여기에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위대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당건설업적과 조국건설업적에서 중요하것은 당대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당과 조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다져주시는것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전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굳건하며 통일단결, 강위력한 국가정권과 튼튼한 자립민족경제,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문화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모든 귀중한 재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한방성이 깃들어있다.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모든 사업을 전방성있게 설계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초인간적인 헌신지도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 사회주의붉은기를 굳건히 고수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올수 있었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 백두산대국의 국력강화의 끊임없는 전성기를 펼쳐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성신, 혁명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 있다. 당의 강화발전과 민족민대의 변영을 위한 역년기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조국을 참다운 어머니당,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전진시켜주시 혁명의 대성인이시이다.

혁명적당과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사명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데 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이것은 불멸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이민위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정치적 조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당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조국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빛내이기 위하여 바치신 헌신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주체적인 대중적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마크에 마지와 낫과 붓을 새겨넣도록 하시니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세상에 없는 인민적시책들을 내놓으시여 우리 조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빛내이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이다. 인민들이 조바를 먹을 때는 우리도 조바를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꾼들이 인민들과 교과를 함께 해나가기로 실천적모범을 보여 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경제부담 책임일일론의 회를 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날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영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록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어머니당으로, 우리 조국은 비바람도 눈보라도 다 막아주며 인민들에게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어머니품으로 전진되게 되었다. 세상은 나라도 많고 인민을 위한다는 당들도 있지만 우리 당과 조국처럼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으로 긍지높이 불리우는 당과 국가는 없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영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수천년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여 우리 당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신 탁월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과 조국을 영원히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온 누리에 빛내이는것을 숭고한 도덕리론, 혁명적본분으로 간직하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역세게 싸워나간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대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우리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우러르며 이 땅

위에 세세년년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고고한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는가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오직 그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은 우리 혁명의 교사이며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한다. 조국해방 일흔륙과 당창건 일흔육의 대추진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관철한 크나큰 자랑과 긍지를 안고 땀땀이 들어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영도는 우리 당과 조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 강성변영을 위한 필승의 기치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결한 총정을 지니시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 밑에 승리를 펼칠은 우리 당과 조국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영도에 의하여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로 끊임없는 헌신지도강령군기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영도에 의하여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로 끊임없는 헌신지도강령군기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유혼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육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강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간다.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일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앞장서서 받드는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꾼들이 백전백승의 혁명정신,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혁신적인 일본새, 고상한 인민적풍모를 지니고 력사의 생년경을 앞장서서 헤쳐나갈것을 기대하고있다. 모든 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치열한 격전장에 나선 육탄용사와 같은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숭배한 항심과 의리,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만드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더 맹렬하게 벌려나가기 한다.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승산이 확고할수 있는 원수님을 숭배한 항심과 의리,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만드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과 위훈들을 창조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훈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지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당의 요구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단숨에의 기상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인민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쟁위협을 따라앞서기 위한 작전과 계획을 통이 크게 세우고 결실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실천해나가기 한다.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에 늘 자기를 돌이켜보며 산람복구전투를 비롯한 만년대의 애국사업에 진심을 바쳐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유혼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육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강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간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손님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7월 주조경 제 및 무역참사단,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

부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성동로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통일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단체들과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조선선전협회,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 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7월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밭이 찍혀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본사기자

력사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로르니아에서는 토론회가, 기네에서는 강연회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좌담회들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조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어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르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나이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을 해방하시고 조선땅위에 인민이 주인된 참다운 사회주의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김정은동지의 영도밑에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로르니아사회주의당 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기네 기교련합총회사 행정관리 및 전설대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을 만방에 파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영도력으로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또한 조선통일위업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나라와 민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찾은 수도의 근로자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태양의 그 미소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인민은 못 잊습니다

절세위인의 태양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축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면 수령님께서 영령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억척같이 간직되어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우리 오늘에 이르는 20여년간은 수령님의 영상을 축원하는 인민의 마음이 대하되 흘러온 날과 달들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7월, 만수대창작사 창작자들은 터져나오는 피눈물을 삼키며 충정의 창작전투를 벌이고있었다.
비보에 접한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일꾼이 안고온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을 전달받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존판케를 벗어나 영결식의 초상화를

생전에 가장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을 원화로 할것을 받기하시고 친히 사진까지 선정하여 보내주신것이였다.
태양광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전달받는 순간 창작사일꾼들과 창작자들은 오열을 쏟았다.
그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시었다는 사실을 믿을래야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창작자들은 낮과 밤을 잊고 충정을 바쳐갔다.
그러하여 그들은 며칠만에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완성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렸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한하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하한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무는 말씀이라도 드리실듯, 금시라도 올릴것만 같은 아버지수령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는데 오예도 료보고 또 보시었다.
이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강하게 안겨온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액들을 우리의 국화인

목련꽃으로 소담하게 형성할데 대하여서와 수령님께서 즐겨입으신 양복과 넥타이,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애용하시던 넥타이까지 가져다주시며 초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기 위해 수도의 10여리 연도에 달려나왔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경주차가 다가오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온 나라에 서린 피눈물의 장막을 단숨에 걷어내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처럼 밝은 미소를 담으시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닌가, 수령님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뵈옵는것만 같은 감격과 놀라움, 더더욱 처절한 통분함으로 인민들은 눈물을 쏟고 쏟았다.
어제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자애로운 모습, 햇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누구나 자기의 심장속에 새겨두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수령님의 슬결, 수령님의 체취를 따라 이마를 닦고자 하듯, 수령님보다도 마음은 천배로 든든해 지고 힘은 온갖을 쏟았다.

천만근민은 햇빛같이 웃으시는 수령님의 그 영상을 우러르며 누구나 스스럼없이 불렀다. 태양상조상화였고, 태양상조상화, 정병 그것은 인민의 진정과 축원이 담긴 세상이 잊지 못하는 세 초상화의 명성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언제나 몸가 가까이 모시고 그 햇빛 같은 미소를 실감으로 느끼며 살고싶은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해이리던 장군님께서서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성한 동상들과 조각이코비화들을 전국각지에 모시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우리 공장에 두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조상화이크비화를 모시고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지평이를 짊어지며 떠나가신 우리 연변의 농민들도 수령님을 영원으로 모시고있습니다.》
《우리가 방방곡곡에서 이런 불같은 열정이 흘러나왔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서 지난 21년간 만수대창작사 동상제작단에서는 수십상에 달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서야 한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선의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고찾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대에 높이 받들어서야 하는 단념을 다지고있다.
10대의 어린이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자주위를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지성이 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위해 애를 기울이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지성이 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위해 애를 기울이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지성이 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위해 애를 기울이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서야 한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선의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고찾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대에 높이 받들어서야 하는 단념을 다지고있다.
10대의 어린이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자주위를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지성이 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위해 애를 기울이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서야 한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선의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고찾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대에 높이 받들어서야 하는 단념을 다지고있다.
10대의 어린이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자주위를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지성이 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위해 애를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세대를 이어 흐르는 그리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 21돐에 즈음한 념맹일꾼들과 념맹원들의 덕성연구발표포임 진행
이 지니야 할 품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결출한 위인이시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나신 지는 비범한 사색과 탐구, 불같은 노력의 열매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수령님은 사람됨의 마음을 환히 꿰고계신 인간성리의 박사, 백과사전적인 식견의 체현자이시며 비방한 기역력의 소유자이시다고 말했다.
이렇듯 비범한 자질과 교만한 품도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시대와 력사, 인류문명의 앞길을 밝히는 세기의 태양으로 한생을 빛내시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념맹원들은 조국과 혁명, 인류의 자주위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현재의 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뜨거운 격정에서 체현시켜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은 인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확고한 신념입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의 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곳곳에 이로써겨진 영광의 교정 김철주사범대학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새겨져 끊어지지 않고있다.
60여년전 11월, 대학을 찾으며 교실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앞으로 교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되새기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사편양에 영생축원의 꽃송이를 정성드리는 청년학생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경모의 정, 불타는 그리움이 넘쳐난다.
《바로 스물한해전 7월 북반의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저의 부모들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태어났지 할날도 못된 저를

아버이 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신 고귀한 한평생 온 거레를 감복시킨 숭고한 덕망

회세의 성인, 절세의 예극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뜻박에 잃은 대극상의 비분은 온 나라, 온 민족 아니 전인류가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거레의 그리움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절절해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바로 온 거레의 마음과 마음이 베푸어 한나까지 삼천리강토에 뜨겁게 굽어지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혀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은 더욱 불타오른다. 정말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한평생 로고로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정년 거레의 통일열망을 한가슴에 안고서 통일만을 생각하며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놓으시고 삼천리강토에 거센 통일의 열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통일영수의 빛나는 한평생이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있다. 천만년세월이 흐를수록 김일성주석님을 잊을 수 없었던가. 날이 갈수록 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간다.》

남편이 거레들이 터친 이 목소리 위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충성의 마음, 불같은 그리움의

정기 그대로 비껴갔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헌신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짙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실낱을 뚫고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 오로지 민족을 위해 온몸을 강그리 불태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 누구보다 거레를 사랑하시고 조국통일을 절절히 념원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지새우신 밤은 몇백, 몇천밤이고 걸으신 길은 몇천, 몇만리이고. 그러저서 몸소 집필하신 조국통일과 관련한 저작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장구한 인류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도 강그리 바친 그런 위인, 절세의 예극자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로고로 있었기에 조국통일과 민족단태의 부강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통일에 국취위에 바치신 고귀한 희생의 열매를 민족사적 공적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뜨거운 부모의 정글에 잠겨

우리 조국땅에 또다시 그리움의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분류의 로고 민족의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7월이 왔다. 온 거레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마음과 마음은 출판물들에 실리는 글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위대한 사랑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맞이하게 된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이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존함 그대로 태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단군민족을 부활시켜 민족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현대조선의 건국시조이시요 태양민족의 원시조이다. 우리 민족은 그분을 모시게 됨으로써 태양민족의 고고성을 울리며 새로운 운명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끝없는 로고와 헌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낮에 밤을 이어 사색을 거듭하시며 수많은 통일명안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해 하루도 편한 잠

우리 민족이 그분을 태양으로 칭송한것은 그분의 모습에서 하늘의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빛을 보았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압록

대양 민족의 은인

바로 우리 민족은 그분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민족재생의 광명을 받아안았고 그분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으로 조국해방을 맞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제시하신 인민위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영원히 빛나는 태양의 모습

지금 우리 거레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숭배하며 우러르고있다. 흐르는 세월은 모든것을 실어간다고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거레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아로새겨지고있다. 서울의 한 지식인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나에게는 우리 거레와 세계 진보적민중이 태양양이라고 경청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화가 가장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나는 늘 이 태양상을 가슴속에 품고 산다.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양! 햇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미소는 온 우주에 넘쳐나는 태양의 미소이다. 그 미소에는 주석님께서 80여성상 한평생을 강그리 기울이시어 이룩하신 민족의 해방과 복락에 대한 긍지로운 자부나 비껴갔다. 그 미소에는 오늘날이 어니 매일에 대한 헌신, 승승장구하고 무궁번영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비껴갔다. 오늘도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투쟁의 길을 달려가는 나의 눈앞에 태양의 미소가 햇빛처럼 밝게 비쳐준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좁은 철길이 설공사성과 계속 확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침수지역 좁은철길이설공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다리를 조물공사를 맡은 철도성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사가 시작되자 50여명의 선군청년호수과 공사장관리와 동거초고속철을 전부 끝내며 이어 지진기 동공크리치기전투에 진입하였다. 광장도의 각 시, 군과 공장, 기업소에서 달려온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열흘만에 로반형성을 위한 수만㎡의 성토, 철도공사로 진행하여 10km에 달하는 로반기초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주석님을 마음속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청진철도국역에 여러 분국로력으로 공사현장을 기동적으로 편성하여 이어 견제하는 원수님의 호소와 감사문을 받아안고 건설장으로 탄원한 평양, 함흥, 개천철도국의 청년동맹원들 무려 3000여명의 선군청년호수과 공사장관리와 동거초고속철을 전부 끝내며 이어 지진기 동공크리치기전투에 진입하였다. 광장도의 각 시, 군과 공장, 기업소에서 달려온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열흘만에 로반형성을 위한 수만㎡의 성토, 철도공사로 진행하여 10km에 달하는 로반기초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주석님을 마음속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다. 청진철도국역에 여러 분국로력으로 공사현장을 기동적으로 편성하여 이어 견제하는 원수님의 호소와 감사문을 받아안고 건설장으로 탄원한 평양, 함흥, 개천철도국의 청년동맹원들 무려 3000여명의 선군청년호수과 공사장관리와 동거초고속철을 전부 끝내며 이어 지진기 동공크리치기전투에 진입하였다. 광장도의 각 시, 군과 공장, 기업소에서 달려온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열흘만에 로반형성을 위한 수만㎡의 성토, 철도공사로 진행하여 10km에 달하는 로반기초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주석님을 마음속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